

### \* 일본

## 벤처 창출의 거점은 국립대학

# 2015년판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새로운 대학·대학원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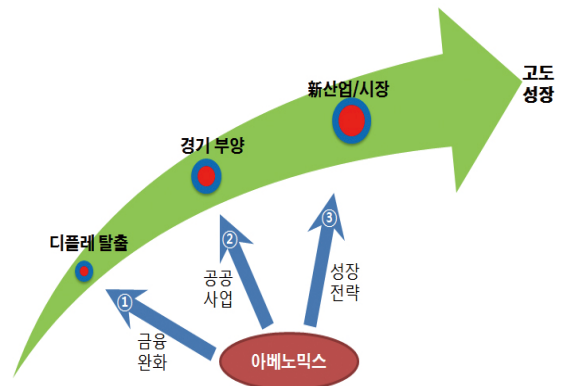
글 : 이정찬 (j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6월 30일, 일본 국회는 내각회의에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일본재흥전략』(성장전략) 2015년 개정판<sup>1)</sup>을 결정하였다. 2013년 6월 'Japan is BACK'이라는 부제를 붙여 첫 재흥전략을 내놓은 후 매년 6월마다 개정을 거듭했으나 올 해는 3차 전략인 셈이다.

3차 재흥전략의 두 기둥은 「미래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명」과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이다. 첫 번째 기둥 '생산성 혁명'을 위해 앞세운 몇몇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벤처 창조의 선순환>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같은 맥락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베내각은 벤처 창출의 중심점을 '대학'으로 보고 새로운 유형의 대학과 대학원 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첫째, <특정연구대학>(가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 1: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자료: 이정찬(2014.7.1)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과 이슈, 제1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학 제도 도입이다. 특정연구대학이 일반 국립대학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높은 경영권이다. 대학이 스스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권에 대한 높은 자율성을 과감히 부여하였다. 또 하나는 수익사업권이다. 대학이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기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국립대학이 경영권과 수익사업권을 가지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된다. 대학에서 창출된 새로운 기술 시즈(seeds)에 경영전문가와 투자가 결합되어 벤처기업을 낳고 이것이 또 인재·기술·자금을 불러들여 ‘벤처창조 선순환’을 확립시키는 것이 특정연구대학의 조준점이다. 해당 대학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아베내각은 차기 통상국회(내년 1월경)에 특정연구대학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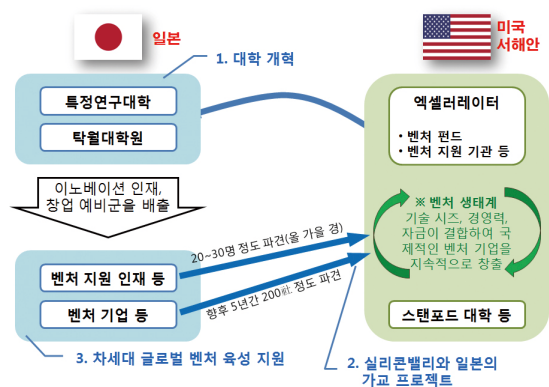
둘째, <탁월대학원>(가칭)이라는 대학원 제도 도입이다. 탁월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해외기관 등이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점이다. 설립주체를 다양화한 것은 문리(文理)융합과 같은 이(異)분야의 일체적 교육,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의 교육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융합분야 발전에 대응하는 한편 더 나아가 신(新)영역·신산업을 창조하고 신규 창업을 일으키는 것이 탁월대학원 도입의 핵심 목적이다. 아베내각은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탁월대학원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규 대학·대학원제도 도입에 더해 아베내각이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인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파견하여 현지의 벤처지원기관 등과의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휴 및 투자획득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정연구대학 설립, 탁월대학원 설립,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 실시는 「벤처 챌린지 2020」의 추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2020년까지 미국 서해안과 같은 국제적인 수준의 벤처거점을 일본에 형성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 벤처거점을 대학과 대학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아베내각의 3차 재흥전략은 일반적인 벤처가 아닌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에 역점을 뒀다. ‘생산성 혁명’을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 수 늘리기보다 일본 경제사회와 산업구조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혁신적인 첨단 벤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국립대학과 대학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일본의 창업 특화형 국립대학·대학원 제도 추진, 우리 국립대 개혁과 관련해 주시해 볼 만한 내용이다.

그림 2 : 「벤처 챌린지 2020」의 추진 개요



자료: '일본 내각관방(2015.6)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의 개요'를 필자가 재가공